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지역리포트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국문요약

최근 뉴질랜드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는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에 경제 회복에 성공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안정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뉴질랜드는 세계상품시장이 호조를 보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수출증대를 배경으로 2001년에는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내수경기가 호조를 보여 수출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성장패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뉴질랜드의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크고 과거 세계경제 충격에 취약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최근의 호황이 일시적이며, 또한 세계경제 환경이 뉴질랜드의 경제적 여건에 이례적으로 유리한 특수한 상황이었고 장기적으로 최근과 같은 성장기조는 쉽게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과거 약 20년 동안 개혁을 통해 변화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현재에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대내외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체질과 경험을 키워왔다. 그런 만큼 기회를 배가할 수 있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기에 뉴질랜드는 최근의 호황을 누릴 수 있었고 안정적 성장세 유지가 가능하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뉴질랜드는 1980년대 상반기까지 농업보조금, 산업보호주의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자 당시 정부는 정부주도로 경제회복을 시도하였으나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점차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 1984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였고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체질 강화를 모색하였다. 시장이 개방되고 시장원리가 경제구조를 지배하였으며,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뉴질랜드의 산업구조는 점차 변화하였다.

최근 뉴질랜드의 경제호황을 단순히 운에 의한 호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듯하다. 세계상품시장 강세와, 축산물 관련 질병, 관광객 유입 등은 뉴질랜드 경제여건에 흔하지 않은 호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뉴질랜드의 경제호황은 경제개혁의 성과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농업개혁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한 농업경영이 정착하였고 낙농제품과 축산물의 경쟁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산업의 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였고 외국과의 합작, 투자유치 등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고용을 증대시켰다. 수출증대에 따라 소득이 증대하였고 기업들의 재투자는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2002년 8월 현재 뉴질랜드의 고용률은 1980년대 이후 최고수준이다. 따라서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단련하였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 최근 뉴질랜드 호황의 기반이라 요약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작하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개혁은 미래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 례

국 문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2장 최근 뉴질랜드 경제	9
1. 개요	9
2. 국내경제	11
가. 통화정책	11
나. 재정정책	12
다. 물가	13
라. 국내총생산	15
마. 민간소비	20
바. 노동시장	21
3. 대외경제	24
가. 최근 뉴질랜드의 대외경제 여건	24
나. 교역현황	26
다. 외국인직접투자	30
라. 국제수지	32
제3장 경제개혁과 최근의 경제호황 배경	34
1. 경제개혁의 배경: 1980년대 뉴질랜드 경제	34

2. 경제개혁의 내용	35
가. 시장개방	36
나. 가격통제 및 가격지지정책 폐지	37
다. 시장경쟁 기능 강화	38
라. 농업개혁	39
마. 기초 경제질서 확립	40
바. 금융제도 개혁	40
사. 기타: 민영화(Corporatization) · 기업화(Privatization)	42
3. 최근 경제호황의 배경으로써 경제개혁 성과	43
가. 핵심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	43
나. 고용구조 변화	45
다. 생산성 향상	46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49
참 고 문 헌	53
Executive Summary	55

표 차례

<표 2-1> 뉴질랜드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10
<표 2-2> 뉴질랜드 경제전망	11
<표 2-3> 최근 뉴질랜드의 주요 물가지수 및 상승률 추이	14
<표 2-4> 뉴질랜드 농산물 생산 추이	16
<표 2-5> 뉴질랜드의 주요 제조업 생산추이	18
<표 2-6>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추이	23
<표 2-7> 뉴질랜드의 무역 규모 및 가격 증가율 추이	26
<표 2-8> 뉴질랜드의 주요 상품 수출추이	28
<표 2-9> 뉴질랜드의 주요 상품 수입추이	29
<표 2-10>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30
<표 2-11>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대상국	30
<표 2-12> 최근 對뉴질랜드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2
<표 2-13> 뉴질랜드 국제수지	33

그림 차례

<그림 2-1> 1997년 이후 뉴질랜드 달러 환율 추이	24
---------------------------------------	----

제1장 서론

1999년 이후 뉴질랜드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는 1999년과 2000년에 수출호조로 3.5% 이상의 성장세가 이어졌고, 세계경제가 위축되었던 2001년에는 내수경기가 주도하여 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98년 동아시아에 경제위기가 확산되자 뉴질랜드는 수출부진, 경상수지 적자 및 외채 누적, 환율불안 등의 양상을 보여 1980년대에 경험하였던 경제위기에 대한 염려가 증대되었으나 1999년에 경제회복에 성공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뉴질랜드는 저성장, 고물가, 수출부진의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에 대외부채가 급증하여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고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경제여건이 더 이상 뉴질랜드에 우호적이지 않음을 인식하였고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뉴질랜드 개혁은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개혁 이전 수구세력으로서 저항이 염려되었던 농민들도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뉴질랜드 정부의 개혁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뉴질랜드 경제개혁의 핵심은 자유화다. 주력산업인 농업은 보조금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화 이후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경쟁력 없는 제조업은 과감하게 퇴출되었다. 금융산업도 정부의 규제완화로 금융부문의 자유화가 진전되는 등 비즈니스 환경도 내외국인들에게서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금융부문 자유화 정도는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경제 호황의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세계상품 시장의 호조와 뉴질랜드産

농산품의 수요증가로 1999년과 2000년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이룩할 수 있었다. 수출증대는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2002년 이후 수출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호조를 보여 뉴질랜드는 수출 부진을 상쇄하는 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뒤에는 최근의 세계경제 환경이 뉴질랜드의 경제적 여건에 이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특수한 상황이었으나 장기적으로 최근과 같은 고성장 기조는 쉽게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과거 약 20년간 개혁을 실시하는 동안 변화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현재에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대내외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체질과 경험을 키워왔다. 그런 만큼 뉴질랜드는 기회를 배가할 수 있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기에 최근의 호황을 누릴 수 있었고 안정적 성장세 유지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고는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경제실적과 과거의 경제개혁 내용 및 성과를 문헌조사 및 현지 정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최근 뉴질랜드 경제현황을 국내경제와 대외경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은 1980년대에 시작하였던 뉴질랜드의 개혁을 경제개혁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성과와 함께 서술하였다. 제4장은 본고의 결론이다.

제2장 최근 뉴질랜드 경제

1. 개요

2000년 이후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농산물과 상품시장의 호조와 뉴질랜드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보기 드물게 유리한 교역조건이 조성되어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용 및 소득 증대, 관광객 증가로 내수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뉴질랜드 경제는 안정 성장을 이룩하였다.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의한 세계경제 침체로 뉴질랜드는 수출이 부진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 2000년 그리고 2001년의 GDP 증가율은 각각 4.2%, 3.5%, 1.8%를 기록하였고 2002년에도 3% 이상의 증가율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세는 같은 기간 대부분 OECD 국가의 경기 부진과 대조적인 양상으로 소비·수출 및 관광수익의 증가가 뉴질랜드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7년 달러당 1.51뉴질랜드 달러이던 통화가치는 2001년 2.38뉴질랜드 달러로 약 55% 평가절하되어 수출경쟁력이 확보되었고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구제역(口蹄疫) 파동으로 세계 농산물 교역이 냉각되었으나 청정지역으로 입증된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출가격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이에 힘입어 뉴질랜드産 낙농제품 수출은 2001년 한 해 동안 40%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국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입어 뉴질랜드의 민간소비 증가 또한 성장세에 기여하였다. 뉴질랜드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임금 상승률도 3.5%를 기록했다. 반면, 투자는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별다른 기여

를 하지 못했는데 이는 2001년 하반기 미국 테러 사건 이후 기업신뢰도의 하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고용확대는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부문은 농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노동시장은 다소 경직된 양상을 보였다. 실업률은 2000년 6%에서 2001년 말 5.25%로 감소했으며, 이는 1980년대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5년간 평균 GDP 대비 6% 수준이나, 무역수지 개선과 관광 수입 증대로 2001년 3분기에 3%로 크게 감소하였다. 교역이 흑자를 기록하자 뉴질랜드의 대외채무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표 2-1, 표 2-2 참조).

〈표 2-1〉 뉴질랜드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항 목	단 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국내총생산	십억 달러	66.4	54.3	55.4	50.5	49.9
1인당 GDP	달러	16,900	14,377	13,045	12,764	13,280
GDP 증가율	%	2.2	-0.5	4.2	3.5	1.8
금리 ^주	%	8.6	4.6	5.3	6.5	4.8
제조업생산증가율	%	2.1	-3.7	2.3	4.1	0.7
상품수출	십억 달러	14.0	12.2	12.6	13.5	13.9
상품수입	십억 달러	13.3	11.3	13.0	12.8	12.4
경상수지	십억 달러	△4.5	△2.2	△3.6	△2.7	△1.6
소비자물가상승률	%	1.1	1.7	0.4	2.0	3.2
대외채무	십억 달러	65.7	54.8	57.7	57.8	59.8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4.5	4.2	4.5	3.3	5.2
환율(평균)	NZ\$/달러	1.51	1.87	1.89	2.20	2.38

주: 3개월 재무부 채권

자료: DRI-WEFA, Monthly Economic Outlook, 각월호.; Statistics New Zealand

〈표 2-2〉 뉴질랜드 경제전망

항 목	2002	2003	2004	2005
GDP 성장률(%)	3.1	2.4	3.1	2.5
물가상승률(%)	2.6	2.1	1.8	1.8
실업률(%)	5.3	5.3	5.1	4.9
무역수지(십억 달러)	1.2	1.5	1.6	1.4

자료: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2. 국내경제

뉴질랜드의 재정 및 통화정책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통화정책은 완화되었다. 이는 국내 신뢰도 안정 및 인플레이션 통제를 가능케 했다. 최근 3년간 재정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확대 재정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고 중립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가. 통화정책

1988년 이후 뉴질랜드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되고 있다. 즉, 중앙은행에 자율권을 부여하되 재무부와 합의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책임을 지게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4년간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 억제는 성공적이었다.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평균 10.8%에서 1990~2001년 2.1%로 낮아졌다.¹⁾ 2001년 상반기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국

1) 2002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물가상승률은 1970년대 11.5%, 1980년대 10.8%를 기록하여 당시 OECD 평균인 11.0%와 9.1%를 초과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2.0%로 OECD 평균인 3.3%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내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라앉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official cash rate(OCR)를 인하한 데 이어 9.11 미국 테러 사건 이후 한차례 더 OCR을 0.5% 인하하는 등 갑작스러운 경기침체의 충격에 대비하였다.

2001년 하반기 이후 북미와 유럽경제가 회복 가능성을 보이면서 대외경제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과 같이 소비확대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 뉴질랜드도 인플레이션 압력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OCR을 0.25%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에 대비하는 등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뉴질랜드는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이후 최대의 정책목표는 인플레이션 관리이며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전에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나. 재정정책

1994년에 도입된 Fiscal Responsibility Act(FRA)는 운영흑자(operating surplus)와 부채 관리 등 재정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정부는 자율적으로 재정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지출을 GDP 대비 35%로 줄이기로 하였고, 이러한 목표는 2001년 New Zealand Superannuation (NZS) Fund의 지출 원활화 역할을 명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기금이 축적되는 동안 운영비용 및 추가금은 GDP의 35% 정도를 유지할 것이며 기금에서 자금이 인출되더라도 출금액을 뺀 비용(expenses-drawdowns) 또한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 뉴질랜드 정부는 임기 초 새로운 지출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두 가지 재정규칙을 제시하였는 바, 운영지출과 자본지출에 관한 내용이다.

2001년 12월 뉴질랜드정부는 2002년 이후의 재정 전망에서 운영흑자가 중기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5~06년에는 GDP의 2.7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GDP 대비 수익은 안정적으로 대부분의 흑자는 1차 지출 감소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뉴질랜드의 재정지출은 보건과 교육에 관련된 것이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부문에서 지출은 매년 6%씩 증가했다. 최근 뉴질랜드 항공(Air New Zealand)의 국유화로 운영 및 자본지출을 종합한 재정상태는 1990년대 중반 GDP의 3% 이상의 흑자에서 2001~02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단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투자는 병원, 교도소 및 국방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교통 인프라 또한 지출이 필요하나 중기적으로 자본 지출 대부분은 NZS 기금 및 학생 용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뉴질랜드의 단기·중기 재정상태는 건전할 것으로 평가된다. 운영지출 수지(operating balance)는 현재까지 양호하며, 비록 현금 수지(cash balance)가 뉴질랜드 항공의 국유화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곧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의 재정운영에 관한 중기적 과제는 ▲ 보건 지출 예산의 현 수준 유지 ▲기타 운영 지출을 나머지 예산으로 관리 ▲금융 및 유형 자산투자의 질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뉴질랜드 정부의 장기적 부채 및 자산관리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목표 달성은 지출 통제 및 우선 순위 부문에 대한 지출 분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물가

1990년 이전까지 극심한 물가상승을 경험한 바 있는 뉴질랜드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2%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후 1995년 중반 주택담보 대출이자의 상승과 긴축통화정책으로 4%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뉴질랜드의 물가는 줄곧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부터 뉴질랜드의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는 기타 선진국과 달리 주택저당이자율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4/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까지 상승하였는데, 同年의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0.7~1.4 포인트 상승하여 예년의 0.2~0.5 포인트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고유가

〈표 2-3〉 최근 뉴질랜드의 주요 물가지수 및 상승률 추이

(단위: 지수, %)

		교역조건 ¹⁾		생산자물가지수 ^{2),3)}		소비자물가지수 ⁴⁾		노동비용지수 ⁵⁾	
1997	1/4분기	1083	1.7	992	0.1	986	1.8	1070	2.2
	2/4분기	1076	0.9	990	0.1	987	1.1	1076	2.5
	3/4분기	1066	3.8	995	0.5	992	1.0	1082	2.5
	4/4분기	1085	0.4	1000	0.9	997	0.8	1086	2.2
1998	1/4분기	1103	1.8	996	0.4	999	1.3	1090	1.9
	2/4분기	1076	0.0	1003	1.3	1004	1.7	1097	2.0
	3/4분기	1090	2.3	1003	0.8	1009	1.7	1102	1.8
	4/4분기	1080	0.5	1001	0.1	1001	0.4	1105	1.7
1999	1/4분기	1062	3.7	994	0.2	998	0.1	1110	1.8
	2/4분기	1072	0.4	1001	0.2	1000	0.4	1113	1.5
	3/4분기	1106	1.5	1016	1.1	1004	0.5	1118	1.5
	4/4분기	1078	0.2	1032	3.1	1006	0.5	1122	1.6
2000	1/4분기	1048	1.3	1046	5.2	1013	1.5	1126	1.4
	2/4분기	1064	0.7	1060	5.9	1020	2.0	1132	1.7
	3/4분기	1111	0.5	1101	8.4	1034	3.0	1135	1.5
	4/4분기	1113	3.2	1142	10.7	1046	4.0	1140	1.6
2001	1/4분기	1171	11.7	1130	8.0	1044	3.1	1146	1.8
	2/4분기	1167	9.7	1146	8.1	1053	3.2	1152	1.8
	3/4분기	1179	6.1	1169	6.2	1059	2.4	1158	2.0
	4/4분기	na	na	na	na	1065	1.8	na	na

주: 1) 1989년까지 10년간 평균 =1000, 2) 1997년말 기준 =1000, 3) 총산업투입, 4) 1999년 2/4분기 기준 = 1000, 5) 1993년 1/4분기 기준 = 100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기조가 지속되었고 국내적으로 환율의 평가절하와 담배가격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1년 한해 동안 물가상승은 둔화되어 연말 물가상승률이 1.8%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同年 3월에는 주택 임대 거래가 감소하여 소비자물가지수가 0.2포인트 하락하기도 하였다. 환율과 국제상품시장 가격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하였는바, 2000년 9월부터 1년간 생산자물가는 6.2% 상승하였다(표2-3 참조).

라. 국내총생산

1) 1차산업

가) 낙농업

뉴질랜드의 농업부문은 GDP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산업도 GDP의 약 3%를 차지할 만큼 뉴질랜드의 중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기후와 국제상품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여 농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뉴질랜드는 이상기후 혹은 국제상품시장 약세시 경제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1997~99년 여름 뉴질랜드의 가뭄은 농산물 생산량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었고 수출과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의 양호한 기후조건은 뉴질랜드 농산물 작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乳製品과 양고기가 주요 소득원으로 부상하면서 지난 10년간 뉴질랜드의 농업에서 소와 양목축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뉴질랜드 축산자원 변화에서 알 수 있다. 젓소는 지난 1990년 340만두에서 2001년 6월에 470만두로 증가하였고, 반면 쇠고기는 1995년 520만두를 기록한 이후 가뭄 등으로 인한 건초생산 면적 감소로 인해 2001년 6월에는 500만두로 줄었다. 사슴은 1990년대 중반 140만 마리에서 2001년 6월 260만 마리로 증가

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650만 마리에 달하던 양은 2001년 6월 440만 마리로 감소하였다. 뉴질랜드 농림부는 2005년까지 중기 전망에서 쇠고기와 낙농제품의 수출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양모는 해외수요 감소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2-4> 뉴질랜드 농산물 생산 추이를 보면 乳製品은 뉴질랜드 농산물 생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수요가 증가하였던 2001년에는 생산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1998년까지 양, 염소가 낙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9년 이후 소가 이를 대체함에 따라 2001년 생산비중도 소가 12%, 양·염소가 11.5%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농산물에서는 전통적으로

<표 2-4> 뉴질랜드 농산물 생산 추이

(단위: 백만 뉴질랜드 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비중(2001년)
乳製品	3,323	3,210	3,204	3,625	5,028	32.9
소	951	1,260	1,274	1,537	1,834	12.0
양·염소	1,293	1,364	1,185	1,318	1,759	11.5
농업서비스	1,129	1,120	1,114	1,294	1,364	8.9
동물판매	710	1,145	920	835	1,149	7.5
과실	731	685	907	910	1,091	7.1
양모	652	696	605	619	693	4.5
야채	543	579	682	621	648	4.2
종자	413	340	355	332	335	2.2
가축이용 제품	121	31	38	152	290	1.9
기타 원예작물	219	231	275	279	281	1.8
비농업 수입	187	190	186	161	197	1.3
사슴	156	133	145	147	206	1.3
기타 작물	142	173	178	169	187	1.2
되지	133	138	131	129	147	1.0
밀가루·계란	97	94	95	93	95	0.6
총생산	10,800	11,327	11,294	12,221	15,304	100.0
對GDP 농업비중(%)	5.4	5.2	5.3	5.7	7.2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양·염소가 소 생산보다 비중이 높았으나 1980년대 농업개혁과 개방 이후 뉴질랜드 농업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세계시장의 수요에 따라 양·염소 및 소의 생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는 유럽, 동아시아의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등으로 뉴질랜드産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나) 임업

뉴질랜드의 임업은 전체 산업 생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업생산 품목 중 67%가 목재로 주요 외화획득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목재는 합판, 가구용, 판재 등으로 가공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목재 가공품의 수출규모는 2001년 6월 현재 약 33억 뉴질랜드 달러로 전체 상품수출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목재수출의 주요 시장은 일본이고 전체 목재 수출의 1/4에 이른다. 다음으로 호주, 한국, 미국, 중국 및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다.

뉴질랜드는 목재 생산량이 많고 목재처리산업도 잘 발달되어 있어 연평균 1,200만 m^3 의 목재를 생산하여 이 중 600만 m^3 를 통나무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 농림부는 현재의 증가세에 있는 목재 수출기조를 고려할 때 2005년까지 생산량의 35% 수준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뉴질랜드는 향후에도 현재보다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 목재처리 관련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여 고용기회 및 소득증가 효과로 안정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 농림부는 2000~05년 목재가공에 대한 투자는 약 5억 3,100만 뉴질랜드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후 5년간은 15억 달러까지 확대되어 1994~99년의 12억 7,000만 달러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목재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주요 유인은 뉴질랜드 국내외의 원목 수요이다. 앞으로 뉴질랜드의 원목산업은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과 기존 시장에 대한 전략강화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원목생산을 통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제조업

뉴질랜드의 제조업은 2001년 현재 국내총생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력도 총고용의 약 16%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성장세를 시현하던 뉴질랜드 제조업은 1997년 이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침체기를 경험하였고 이후 2년간 지속된 가뭄과 내수침체는 뉴질랜드 제조업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다. 특히 1차산업 관련 제조업은 주요 수출시장이

〈표 2-5〉 뉴질랜드의 주요 제조업 생산추이

(단위: 백만 뉴질랜드 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비중 (2001년)
식품 :						
육류 및 낙농	10,986	11,116	10,682	11,237	13,829	23.2
기타	7,030	7,487	7,689	7,955	8,610	14.4
기계류 및 장비	7,307	7,430	6,780	7,036	7,896	13.2
油類, 석탄, 화학류	6,051	5,941	5,749	6,124	7,570	12.7
목재, 종이류	5,585	5,508	5,420	6,511	7,007	11.7
금속제품	5,576	5,965	5,513	6,042	6,365	10.7
섬유, 신발류	2,836	2,542	2,470	2,594	2,761	4.6
미디어류	2,571	2,570	2,586	2,500	2,632	4.4
비철광물	1,478	1,585	1,581	1,588	1,509	2.5
기타 제조업제품	1,614	1,703	1,615	1,746	1,528	2.6
합 계	51,033	51,846	50,068	53,332	59,706	100.0
제조업 생산지수 ^주	101.8	103.1	98.1	102.4	105.0	

주: 1996 = 100

자료: Statistic New Zealand.

동아시아이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1차 상품 관련 제조업의 침체가 1990년대 말 제조업의 전반적인 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뉴질랜드의 수출호조는 제조업부문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비원자재 상품(non-commodity)은 마케팅, 디자인, 신뢰도 및 상품만족도 면에서 세계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표 2-5> 뉴질랜드의 주요 제조업 생산추이를 보면 1999년 제조업 생산지수는 동아시아 위기로 인한 수출감소로 하락하였으나 다음해에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였고 특히 2001년에는 제조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대 생산품목인 육류와 乳製品은 2001년에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1/4을 차지하였고 증가율도 전년 대비 23%를 기록하여 2000년 증가율 5.2%를 크게 상회하였다.

3)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은 뉴질랜드 최대 산업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였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는 서비스산업에도 타격을 주어 1999년 2% 성장에 그쳤으나 2000년 하반기 이후 관광 및 통신산업의 호황으로 5%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뉴질랜드의 서비스산업은 도매, 소매, 요식업 부문이 주종을 이루며 서비스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차산업과 관련된 무역업과 관광산업이 활발한데, 특히 관광산업은 1997년을 제외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청정지역과 환경친화라는 국가이미지를 배경으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는바, 1998년 이후 서비스산업은 물론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1990년대 이후의 뉴질랜드 달러의 평가절하는 뉴질랜드의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획득 산업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1년에는 약 190만명의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찾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수

준이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호주 관광객은 63만명이 방문하여 전체의 약 33%를 차지하였고, 영국과 미국이 각각 21만명, 18만 7,000명을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경제위기에서 회복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태국 관광객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추가적인 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관광산업은 1998년 이후 매년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 원자재 생산과 함께 주요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교통 및 통신산업도 최근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신산업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보급으로 관광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의 통신산업은 1989년에 개방되었고 1990년 8월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뉴질랜드계 통신회사는 Telecom New Zealand, Testla Clear, Walker Wireless 등이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고, 진입장벽과 규제가 없어 이동전화 회사인 영국계 Vodafone社 등 외국계 16개 통신회사가 뉴질랜드에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질랜드 인터넷 사용료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다양한 공급자가 있어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1,000명당 인터넷 사용자는 OECD 최고 수준이다. 또한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는 기존의 개방정책을 통해 이미 경쟁력이 확보되었으며 더욱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조성과 개방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에 견줄 수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금융산업과 경쟁력에 관해서는 본고 III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마. 민간소비

2001년 세계상품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뉴질랜드의 수출이 감소하자 성

장세 둔화가 예상되었으나 뉴질랜드 성장을 지지하였던 부문은 민간소비였다. 2000년과 2001년 농산물 수출증가로 농가 소득이 증가하였고 또한 고용증대, 물가안정, 저금리 기조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지출 증가율은 2.25%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1년 하반기 저금리 기조는 내구성 소비재 지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4/4분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수입 중고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수경기 활황을 다소 억제하는 잇단 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미 2000년 4/4분기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여 2001년 9.11 테러 직전의 수준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테러사건 이후 세계경제 위축이 기타 국가에는 소비심리 등에 악영향을 주었으나 뉴질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였고 2002년 초반부터 오히려 소비자 신뢰지수는 다시 강세를 보였다. 소비환경이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증가세는 1990년대 내수경기 활황시 4%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때만큼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과거 뉴질랜드 경험에 의해 소비지출 조절과 가계부채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뉴질랜드는 호황기에 가계부채가 총자산의 약 60% 수준에 육박하여 금융불안,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을 경험한 바 있다. 1998년 이후 소득이 증가하고 저축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뉴질랜드 국민들은 부채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채관리와 세계경제의 불안이 완만한 소비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 노동시장

뉴질랜드의 노동시장은 1987년과 1988년에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과 국영부문법(State Sector Act)이 제정된 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었고 이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개혁

의 일부이다. 1991년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s)²⁾의 의회 통과로 노동부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이 법은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근로자는 누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뉴질랜드의 고용률은 1994년과 1996년 중반에 4~5.5%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991년 11%에 달하던 실업률도 6%대로 하락하였다.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로 7%를 상회하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뉴질랜드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2001년 말에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5%대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2년에도 고용이 증대되고 있어 4%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년 뉴질랜드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약 2.5%를 기록하여 고용구조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특히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 전 부문에 걸쳐 고르게 개선되었는데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이 확대되었으나 호황을 기록한 농업, 농업 관련 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확대가 주목할 만하다. 한편 2001년 4/4분기 경제활동 참가율은 66.4%를 기록하여 2000년 평균 65.4%보다 1% 포인트 높았다. 비록 4/4분기의 증가세는 주기적인 상승국면에서

2) 고용계약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결사의 자유 보장
-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근로자는 누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 ① 고용주와 개별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 ② 고용주가 참여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수용한다.
- 고용주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 ① 어떤 근로자와 개별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 ② 2명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집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고용계약을 개별적인 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한 사업장 내에서 병행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 기존의 노사관계법은 폐지한다.

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특히 여성의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표 2-6 참조).

2001년 세계경제 불황 속에 뉴질랜드 경제의 호황은 이민자의 유입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테러사태는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인 귀국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고 출국자의 수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뉴질랜드 이민자의 유입은 1990년대 뉴질랜드정부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던 시기의 유입된 양상과 다소 상이하다. 첫째, 뉴질랜드인의 귀국과 재뉴질랜드 외국인인 정착증가이다. 1990년대에는 외국인의 이주가 대부분이었고 중년 이상의 기술 및 전문직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뉴질랜드로 귀국하는 이민자는 대부분 젊은층인 고학력자가 중심이며 이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 잠재 저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민자들은 경제활동층과 진학을 위한 학생이 대부분으로 1990년대의 가족동반 이민 패턴과 대비된다.

〈표 2-6〉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추이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			
						1/4	2/4	3/4	4/4
경제활동인구증가율	1.3	0.9	0.6	0.7	0.8	0.7	0.7	0.9	1.1
노동력증가율	1.0	0.2	0.7	0.8	1.8	1.3	2.3	1.5	2.0
고용증가율	0.4	-0.6	1.4	1.6	2.5	2.3	3.2	2.2	2.3
정규직	-0.1	-1.2	1.1	2.6	2.4	3.2	3.3	1.5	1.8
비정규직	1.9	1.2	2.8	-1.6	2.7	-0.7	3.0	4.5	4.0
실업률	6.7	7.5	6.8	6.0	5.3	5.4	5.2	5.2	5.4
경제활동참여율	65.6	65.2	65.3	65.4	66.0	65.6	65.9	65.9	66.4
고용률	61.3	60.3	60.8	61.4	62.5	62.0	62.5	62.5	62.8
노동생산성증가율									
생산기준	1.8	0.5	2.5	2.2	-0.1	-1.3	0.0	0.3	0.6
지출기준	2.7	-0.1	2.7	1.9	-0.7	-2.4	-0.9	0.1	0.5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3. 대외경제

가. 최근 뉴질랜드의 대외경제 여건

2000년 뉴질랜드의 경제호황은 1차상품 가격의 강세와 환율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증가에 기인한다. 2001년 말과 2002년 초 환율이 안정되었다고는 하나 뉴질랜드 달러의 환율은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전보다 50% 이상 평가절하되어 있다 (그림 2-1 참조).

〈그림 2-1〉 1997년 이후 뉴질랜드 달러 환율 추이

(단위: \$/NZ\$)



자료: Bloomberg.

동시에 2001년 세계 1차산품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産 상품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는 일국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는 현상으로 뉴질랜드가 이러한 우호적인 교역환경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영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口蹄疫)에 대한 염려로 뉴질랜드産 쇠고기와 양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또한 유럽의 보조금 폐지로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乳製品의 對유럽 수출이 증가하였다. 乳製品은 수출규모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하여 2001년 뉴질랜드의 최대 단일 수출품목으로써 성장을 견인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교역조건은 지난 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2001년 하반기에 상품가격이 다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교역조건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2-7> 뉴질랜드의 무역 규모 및 가격 변화추이를 보면, 2001년 세계 경제 위축과 빠르게 진행된 평가절하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뉴질랜드의 수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수량면에서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으나 乳製品은 5.6%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체 상품 수출증가율 3.1%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수출가격 면에서 원자재가 -0.1%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7%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수입가격 증가율을 고려해볼 때 2001년 뉴질랜드의 교역조건은 예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2-7〉 뉴질랜드의 무역 규모 및 가격 증가율 추이

(단위: %)

	1995 비중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출규모									
총상품	100.0	10.1	2.9	4.8	5.6	-1.0	1.6	6.1	3.1
乳製品	42.3	8.0	5.2	7.5	5.7	-1.7	-0.1	7.6	5.6
제조품 ¹⁾	35.4	13.0	3.6	4.3	9.2	1.0	5.8	5.4	0.8
원자재	20.0	8.9	-2.3	-0.4	-1.1	-4.2	1.0	7.2	2.9
수출가격									
총상품		-4.0	-1.7	-3.5	-2.7	4.8	1.4	17.1	9.2
乳製品		-8.3	-5.3	0.1	-3.0	9.7	3.2	11.6	14.5
제조품		1.4	2.1	-7.1	-2.5	3.5	-2.0	20.7	7.5
원자재		0.4	3.4	-8.8	-2.6	-2.6	-1.2	17.8	-0.1
수입규모									
총상품	100.0	16.3	6.5	3.4	3.6	2.1	13.4	-2.7	1.9
제조품	84.4	17.4	7.1	3.4	4.3	1.0	15.6	-3.4	1.6
에너지	5.3	16.2	1.6	11.8	0.7	13.1	1.0	3.6	-0.1
수입가격									
총상품		-3.6	-0.1	-2.6	-1.1	3.8	2.2	16.5	1.5
제조품		-2.8	-0.1	-3.7	-2.1	5.0	1.4	11.0	1.3
에너지		-15.6	0.7	6.5	6.2	-14.7	19.7	84.5	-0.8
교역조건		-0.5	-1.6	-1.0	-1.6	0.9	-0.8	0.6	7.6

주1: 비식료품

자료: Statistic New Zealand.

나. 교역현황

뉴질랜드는 교역 자유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역장벽 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APEC 회원국으로서 뉴질랜드는 2010년까지 교역과 투자 자유화에 적극 동참하는 등 다자간 협력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지대협정(FTA) 및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교역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CER(경제긴밀화 협정)외에 홍콩과 경제긴밀화 파

트너십(Closer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 중에 있고 싱가포르, 미국과는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고려하고 있다.

1999년 12월 35억 7,3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뉴질랜드의 교역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교역적자 규모는 2001년 9월에 1,2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축소되었다. 2000년과 2001년에 뉴질랜드의 수출증가세는 수입을 초과하였는데, 이 기간에 乳製品 47%, 전기 기기 및 장비 29% 그리고 육류가 24% 증가하였다. 농산품 수출은 주로 육류와 乳製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 전체 상품수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농업개혁을 통해 뉴질랜드 농업은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1990년대 이후 연간 9%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상품수출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품 수출국인 뉴질랜드가 체결한 호주와의 CER 협정은 뉴질랜드산 제조품의 對호주 수출 확대의 효과를 가져왔고 협소한 내수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비록 뉴질랜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세계 교역시장에서 다소 소외될 수 있으나 뉴질랜드는 비용, 디자인, 경쟁력에서 우위가 없다고 판단하면 외국과 제휴를 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은 플라스틱 제품, 카펫, 섬유, 와인 및 컴퓨터 장비이다. 뉴질랜드 경제가 대외지향적인 만큼 수입도 국내경제에 중요한 요소인 바, 뉴질랜드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고 경쟁력 없는 제조업은 과감히 수입을 통해 수요를 해결하였다. 지난 10년간 뉴질랜드의 수입증가율은 70%에 달한다.

<표 2-8> 뉴질랜드의 주요 상품 수출추이

(단위: 백만 뉴질랜드 달러)

	1998	1999	2000	2001	비중(2001년)
乳製品	3,723	3,861	3,975	5,810	18.2
육 류	2,903	2,828	3,376	4,179	13.1
목 재	1,434	1,495	2,016	2,218	6.9
어 류	1,014	1,153	1,206	1,345	4.2
알루미늄	959	956	1,114	1,294	4.1
카세인	652	763	803	1,213	3.8
공작기계류	864	848	944	1,067	3.6
과 일	894	1,062	974	1,031	3.7
전기기기류	621	627	752	915	2.9
양 모	911	741	801	885	2.8
가죽재료	602	535	557	837	2.6
철 광	493	441	614	741	2.3
채수출	501	823	1,256	1,047	3.3
총상품수출 (f.o.b)	21,990	22,600	26,027	31,939	

자료: Statistic New Zealand.

뉴질랜드 교역에서 호주, 미국, 일본은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이 3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47%, 49.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와의 교역규모는 2001년 127억 1,2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총교역의 20.6%를 점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호주와 체결한 FTA인 CER은 1983년 발효 이후 1989년에는 교역자유화 대상에 상품교역 외에서 서비스 교역을 포함하였으며 1995년까지 수량제한 철폐 등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한 완전 자유무역지대 출범 등에 합의하였고 1998년 키타즈만 상호인증협정(Trans Tazma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합의 등을 거치면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FTA로 발전하여 WTO체제에서 발효 중인 모든 FTA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2-9〉 뉴질랜드의 주요 상품 수입추이

(단위: 백만 뉴질랜드 달러)

	1998	1999	2000	2001	비중(2001년)
공작기계	3,387	3,299	3,651	3,936	13.2
자동차	2,094	2,698	3,292	3,384	11.3
전기기기	2,234	2,428	2,834	3,263	10.9
광물성 연료	1,230	1,226	2,169	3,251	10.9
플라스틱 제품류	829	877	902	1,093	4.0
광학기기	721	737	819	952	3.2
항공기	381	798	1,493	877	2.9
제지류	597	664	761	834	2.8
의약품	606	661	703	757	2.5
의류(비가공)	424	439	526	602	2.0
의류(가공)	338	334	399	458	1.5
철강	348	328	338	428	1.4
총상품수입 (c.i.f)	22,021	22,584	27,460	29,885	

자료: Statistic New Zealand.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일본과의 교역이 위축되자 미국이 제2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는데 뉴질랜드는 미국에 대하여 乳製品을 수출하고 주요 공업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뉴질랜드産 알루미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이외에도 각종 원목, 농산물 등을 수출하고 있고 자동차, IT 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외에 뉴질랜드의 교역은 한국, 대만, 중국 등 주로 동아시아 국가와의 의존도가 높는데 동아시아 지역은 뉴질랜드 1차 상품의 수요자이다.

〈표 2-10〉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뉴질랜드 달러)

	1998	1999	2000	2001	비중(2001년)
호주	4,578	4,841	5,503	6,052	19.0
미국	2,596	3,005	3,739	4,643	14.6
일본	3,030	2,878	3,371	4,277	13.4
영국	1,327	1,401	1,609	1,552	4.9
한국	762	883	1,171	1,405	4.4
중국	613	619	731	1,114	3.5
홍콩	633	535	710	846	2.7
독일	579	623	644	842	2.6
대만	564	529	649	722	2.3
말레이시아	443	424	490	687	2.2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표 2-11〉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뉴질랜드 달러)

	1998	1999	2000	2001	비중(2001년)
호주	5,279	5,079	6,543	6,660	22.3
미국	3,726	4,044	4,885	5,026	16.8
일본	2,326	2,771	3,190	3,170	10.6
중국	1,028	1,150	1,527	2,013	6.7
독일	932	1,021	1,115	1,329	4.4
영국	1,123	1,000	1,091	1,115	3.7
말레이시아	423	493	679	911	3.0
한국	408	462	637	652	2.2
대만	523	519	595	649	2.2
이탈리아	455	478	540	625	2.1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다. 외국인직접투자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라졌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뉴질랜드 경제, 특

히 농산물 관련 산업과 고용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외자의 유출입과 의무 이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뉴질랜드는 외국계 기업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시장과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대규모의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낙농과 임업 관련 투자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對뉴질랜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도의 높은 증가세에 이어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는 2001년 하반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경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기업신뢰지수와 투자의향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침체되었던 주택건설이 점차 활기를 보이고 있고 고용증대, 재고량 감소 등의 현상이 2000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어 뉴질랜드의 경기순환은 현재 최고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안정성장의 관건은 뉴질랜드 정부의 경제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2> 최근 對뉴질랜드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2001년 한해 동안 직접투자 유입액은 77억 1,5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 29억 5,400만 뉴질랜드 달러 대비 2.5배 증가하였는바,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잔존 직접투자는 493억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의 638억 뉴질랜드 달러 대비 23% 감소하였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 불안으로 상품시장이 위축되어 뉴질랜드 수출전망이 불투명하여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차 상품 가공 기업이 투자를 축소 혹은 연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01년에 직접투자 유입과 유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이루어진 것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뉴질랜드의 경제자유도가 높아 영업환경이 양호하고 최근 경제성장에서 1차 상품 및 가공산업이 주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과 2002년 수출둔화와 2003년 이후 경기하강에 대한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APEC, OECD 국가의 투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뉴질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GDP 대비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 투자 31%, 포트폴리오 투자 35% 그리고 기타 투자가 35%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투자국은 호주이며 2001년 172억 뉴질랜드 달러를 투자하여 직접투자의 약 35%를 차지하였다.

〈표 2-12〉 최근 對뉴질랜드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뉴질랜드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당해연도 FDI 유입규모	4,343	5,701	2,900	3,411	1,779	2,964	7,715
증가율(%)	-4	31	-49	18	-48	67	160
비중(% GDP 대비)	5.0	6.2	3.1	3.5	1.8	2.8	7.3
FDI 누적규모	39,381	49,212	53,920	62,953	62,487	63,800	49,300
증가율(%)	12	25	10	17	-1	2	-23
비중(% GDP 대비)	45	54	57	64	63	61	47

자료: New Zealand 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

라. 국제수지

1990년대 뉴질랜드의 국제수지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은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이다. <표 2-13> 뉴질랜드 국제수지를 보면 1999년과 2000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6%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전에도 평균 5% 수준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1년 교역수지 흑자폭 확대, 서비스 수지개선 및 관광수입 증대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가 현저히 개선되어 규모는 GDP 대비 3.2%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 뉴질랜드 달러의 평가절하 폭을 고려할 때, 뉴질랜드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환율 평가절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상품이 제한적이고 乳製品에 비해 기타 제조업의 수출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증가하는 대외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충분한 교역흑자를 위해

평가절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에도 뉴질랜드 달러 가치하락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경상수지 개선의 일부는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4% 수준으로 안정시킬 예정이었다. 100%를 웃돌던 뉴질랜드의 순대외채무가 GDP의 8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장기적으로 명목 생산이 평균 5%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가정하에 경상수지 적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뉴질랜드 경제가 잠재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뉴질랜드 외채 60%는 외화표시이고 대부분은 위험회피수단을 강구한 상태이다. 더욱이 뉴질랜드의 금융 시스템은 기업과 가계대출 부문에서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경상수지 적자는 매우 낮은 저축률에 기인하기 때문에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회복되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 계획이 이행될 때 적자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표 2-13〉 뉴질랜드 국제수지

(단위: 백만 뉴질랜드 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출	20,189	20,515	20,858	21,515	22,881	23,809	29,697	33,115
수 입	17,880	19,166	20,074	20,228	21,181	24,678	28,356	29,662
무역수지	9,309	1,349	784	334	1,700	-869	1,341	3,453
이전수지	495	303	700	384	537	394	394	267
경상수지	-3,499	-4,688	-5,737	-6,603	-4,145	-6,945	-6,945	-3,800
%/GDP	-4.1	-5.1	-5.9	-6.6	-4.1	-6.7	-6.7	-3.2

자료: OECD.

제3장 경제개혁과 최근의 경제호황 배경

1. 경제개혁의 배경: 1980년대 뉴질랜드 경제

1980년대 뉴질랜드 경제는 성장률이 낮고 물가상승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외교역에서 수출이 부진하여 경상수지 적자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다. 1970년대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뉴질랜드는 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하였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은 평균 두자리수를 기록하였고, 198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8.7%에 이르렀으며 재정 적자도 GDP 대비 6.5%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1990년대 후반 한국과 태국이 경제 위기를 맞이할 당시 경상수지 적자가 8%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뉴질랜드의 경제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 당시 국민당 정권은 정부주도에 의한 위기 극복을 시도하였다.

1982년 집권 국민당 멀둔(R. Muldoon) 정부는 가격·임금·금리의 동결 조치를 발표하였고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주도의 정책이 제시되고 이후 정부의 통제 및 시장 개입이 강화되자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가장 규제가 심한 국가가 되었다. 결국 멀둔 정부는 집권(1975~84년) 동안 석유위기, 자본자유화, 시장개방 압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외부 충격에 대해 시장의 힘보다는 정부 개입의 힘에 의존하여 국가경제 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멀둔 정부

의 정책 대응은 외형상 케인즈의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근본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재는 인기 공약으로 탄생한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인기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경제위기시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심화를 초래하였으며 급기야 사회 전반에 대폭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4년 7월 국민당 정권이 물러나고 롱이(D. Lange)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였고 재무부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개혁의 철학은 시장자유주의였다. 즉, 모든 자원배분과정에 정부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시장경제를 부활시킨다는 것이 우선 과제였으며 개방을 통해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체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2. 경제개혁의 내용

1980년대 뉴질랜드는 정부의 시장 개입 이후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22%, 총자본 형성의 25%로 크게 증가하였다. 뉴질랜드 달러는 지속적인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1981년까지 고평가되어 단기적으로 수출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저해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는바, 개혁 착수 직전인 1983년에는 성장률, 물가 등의 주요 지표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즉, 멀든 정부의 개입정책은 뉴질랜드 기업과 상품의 국제경제력을 떨어뜨리고 뉴질랜드 경제를 세계의 물가 추세와 동떨어진 가격체제로 만들었다.

1984년 7월 집권한 노동당 정권은 계획하였던 개혁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뉴질랜드의 개혁은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개혁은 시장개방, 시장기능 강화, 핵심 산업의 구조조정 및 기초 경제

질서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초기 정책의 중심은 가격정책이다. 환율을 약 20% 평가절하하였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이자율을 자유화하는 것과 임금과 각종 서비스 가격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조치가 가격정책에 해당한다. 무역과 통화정책에서는 수입 수량제한 철폐, 직접투자를 포함한 자본거래 자유화, 외환거래 규제 완화, 중앙은행의 독립 등 개혁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렇듯 노동당이 추진한 개혁은 우선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회생에 중점을 두었고 경제개혁은 뉴질랜드 개혁의 핵심부문으로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장개방

뉴질랜드가 개혁 직전까지 수입규제정책을 유지해온 것은 영국과의 교역 때문이다. 뉴질랜드 농축산물의 최대 수입국이던 영국이 1973년에 당시의 EEC에 가입한 직후 수출국과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출부진은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발생하여 수입규제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소비재가 뉴질랜드에서 조립·생산되었고 일부 자본재에도 이러한 방식의 생산을 지속하였다. 뉴질랜드의 수입규제 및 국내생산 증대 정책은 뉴질랜드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 및 국제수지 악화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4년 노동당 정부는 첫번째 개혁사업으로 시장개방을 선언하였다. 수입시장 개방은 수입면허 요건완화와 단계적인 관세율 인하로 시작되었다. 1986년 뉴질랜드의 평균 관세율은 28%였으나 1992년에는 10%로 하락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5% 이하로 낮아졌다. 수입개방으로 인해 소비재수입이 급증하는 등 개방도가 높아져 뉴질랜드의 대외

의존도는 개혁 직후 70%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수입개방으로 뉴질랜드 국민은 다양하고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후생이 증가하였다. 시장개방은 경제의 대외 면역력을 높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곧, 특정 산업의 보호가 철폐됨을 의미한다. 1985년에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함으로써 환율의 경직성을 해소하였다. 이러한 시장개방과 함께 외환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對뉴질랜드 직접투자와 뉴질랜드 자본의 해외투자가 허용되었다.

나. 가격통제 및 가격지지정책 폐지

1984년 뉴질랜드 정부는 물가·임금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통제를 철폐하였다. 일반물가는 1984년에 금융기관 여신관리를 통한 신용팽창 조절로 물가수준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던 가이드라인 정책을 폐지하였고, 1986년 이후에는 가격통제를 포기하였다. 임금과 이자율도 원칙적으로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개혁 초기인 1986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이후 물가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가격지지정책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등을 통해 일정한 가격수준을 유지하던 농산품에 대한 최저보상가제도, 농업 관련 세제우대, 수출실적 관련 조세유인 등이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특히 뉴질랜드 개혁에서 가격지지정책을 폐지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뉴질랜드 산업정책이 보호에서 경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내산업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를 1980년대 초반 정부지출의 16.2%에서 1994년까지 4%로 낮추기로 하고 농업보조금 등을 폐지하였다. 또한 수입대체산업, 국방산업 등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온 산업에 대한 지원도 전면 폐지 혹은 완화하였다. 국내산업 간과 해당 국외산업 간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개혁의지가 잘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후 뉴질랜드에서는 그동안 인정되어왔던 우대조치가 폐지되어 기업체들이 로비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이 축소되고 시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제품 생산만이 법칙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다. 시장경쟁 기능 강화

뉴질랜드 정부는 시장의 독과점을 가져온 각종 법률, 각종 인허가제도, 면허제도 등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업활동으로 제공되던 재화와 서비스를 기업화 혹은 민영화로 추진하여 시장원리가 반영되도록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가격의 하락과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왔다. 1984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뉴질랜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업활동을 기업·민영화하기 위해 24개 정부기업의 민영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의 민영화요건 제시, 공항·항만·지역 유틸리티사 지분의 매각 촉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1984년까지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조세유인을 부여하였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소비·저축·금융자산의 투자·기업의 투자결정 등 조세의 영향이 큰 부문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였다. 이는 국내기업이 직면하는 시장가격을 국제시장에 근접시켜 뉴질랜드에서의 영업활동이 국제적 상황과 동일한 경쟁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유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 혹은 면세 소득을 찾아내어 과세하는 등 세원확보에 주력하였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이루어내었다. 부대편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자소득을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해 과세하며 수출 유인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외시장 개방과 가격지지정책의 철폐 그리고 조세유인 폐지 조치가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연관성 있게 유지하여 개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금융시장, 상품교역시장, 각종 재화 및 서비스 생산물 시장에서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게 되었다.

라. 농업개혁

농업이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개혁도 초기에 이루어졌다. 우선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과제였다. 이에 따라 개혁 초기에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가 폐지되었고 생산자에 대한 융자 금리를 시장금리로 전환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농산물의 경쟁력 요인이었던 비료 및 관개용수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1987년까지 농지개발촉진 제도와 밀 위원회, 육류농가 판매수입 안정화 기금계정을 추가로 폐지하였는데, 이 조치로 乳製品 가격이 5% 이상 하락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11% 이상 상승하면 일정 금액을 예치토록 한 기금이 사라지게 되어 낙농가의 소득안정장치가 없어지게 되었다. 대신 뉴질랜드 정부는 선물환 등을 통해 수출금액의 안정을 모색하여 이전의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개혁의지는 지속되어 1989년 농업은행을 민영화하였고 1991년 낙농위원회를 독립시켜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농산물 생산에 영향력을 주던 생산자위원회와 유통위원회의 기구 축소가 이루어져 농산물 생산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농산물 관련 각종 보조금과 규제가 풀리면서 뉴질랜드 농림부의 기구 축소가 불가피해져 1990년 이전 약 6,000명에 이르던 직원이 1996년에는 약 2,000명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마. 기초 경제질서 확립

신규 입법을 통해 소유권 행사, 노사관계 정립, 기업합병 장려, 공정경쟁의 촉진과 소비자보호, 자율적인 통화정책 운영, 조세체계 단순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기초 질서의 확립과 재정비를 추진하였다.

우선 상법을 개정하여 기업 합병과 영업활동을 감시하고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였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였으며, 국제 조세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기업과세체계를 표준화하고 상품세(GST)를 도입하여 간접세체계를 단순화하고 기존 조세체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개혁 추진 이후 1986년에 개정된 상법은 가격규제와 독점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경쟁을 보장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의 개정으로 뉴질랜드의 상업활동에서 규제기관과 가격통제 등의 조치가 배제되었다.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격규제를 통해 대처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적인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경쟁적 행동을 저해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바. 금융제도 개혁

뉴질랜드 정부는 1985년 3월 외국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발행주식의 70% 이내)을 폐지하고 1986년 7월 ‘중앙은행법’ 개정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전환을 허용하고 은행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상업은행 수는 1980년대 초 4개에서 한때 20개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중소은행의 합병·통합으로 현재 17개 은행이 영업 중에 있다.

일련의 금융개혁조치 실시 등으로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1986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통화정책기능을 강화하였다. 1986년 개정에서는 주로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감시기능 및 은행의 수지상황 공표권한을 강화하였고, 1989년 개정에서는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일원화하여 물가안정 목표 관리정책(Inflation Targeting)을 법제화하였다.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부과, 은행감독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개혁 이전 뉴질랜드의 통화정책은 경제성장, 국제수지 관리, 고용, 물가안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개혁 이후 통화정책의 의미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바뀌었고 물가안정 목표수준은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간 통화정책 관련 합의사항은 문서를 통하여 공개되며, 중앙은행은 6개월마다 통화정책을 재검토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고 통화정책에 관한 보고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책임과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우선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수행과정 및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사회가 재무장관을 대신하여 정책수행 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총재는 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앙은행법’에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중앙은행에 높은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금리를 자유화하고 완전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며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통화정책 수행방식도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고 금리 및 환율의 가격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1985년 3월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중앙은행 통화량 목표 관리 정책을 도입하였

으나 금융자유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통화량과 물가 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하면서도 환율, 금리, 실물경제동향 등 각종 금융경제지표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Check List³⁾ 방식을 동시에 도입하였다.

금융기관의 결제자금 과부족 조절 등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은 주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수행하는데 상업은행들이 결제를 위해 중앙은행에 설치한 당좌계정 잔액은 반드시 플러스 또는 균형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상업은행 전체의 잔액 목표치를 설정하여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결정한 후 국공채 매매조작 등을 실시한다.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잔액 목표치 변경, 재할인 금리변경, 중앙은행채 공급규모 조절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였다.

사. 기타: 민영화 · 기업화(Corporatization · Privatization)

민영화는 공기업을 순수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공공부문 적자해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경쟁 도입 등을 그 취지로 하여 경제개혁에서 주로 추진되는 부문이다. 뉴질랜드도 1980년대 경제개혁에서도 민영화가 추진되었는데 그 대상 분야도 삼림, 항공, 토지, 우편, 석탄, 전력, 통신, 해운, 보험 등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공기업을 거쳐 민영화한 조직은 석유, 텔레콤이며 공기업으로 남아 있는 조직은 철도, 항공, 토지, 우편, 석탄, 전력회사 등이다. 민영화가 거부된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민영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사업부문은 민영화 · 기업화 과정을 통해 영업실적이 개선되

3) Check List 방식은 금융경제지표의 check list를 만들어 각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지표별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는 재량적 통화정책 방식이다.

었으며, 무엇보다 눈에 띄는 실적은 공공부문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공공부문에 고용된 인원의 감축을 통해 슬림화와 효율성을 모색하고 급여지출 감소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상이 되지만 노조의 저항을 포함하여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비사업부처의 인원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료와 교육분야를 보면 의료는 비사업부처의 약 26%에서 21%로 감소한 반면, 교육은 31%에서 37%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후 뉴질랜드는 정부의 사업부처와 비사업부처가 서로 상이한 조직을 갖게 되었다.

3. 최근 경제호황의 배경으로써 경제개혁 성과

뉴질랜드의 개혁은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추진되었거나 혹은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 분야의 성과를 서술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을 조사하였고 경제호황이 수출호조가 크게 작용하였으므로 경제개혁의 성과를 산업구조, 고용구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가. 핵심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

뉴질랜드는 경제개혁 이전 보호정책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였으나 이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였다. 이후 경제개혁과 대외시장 개방을 통하여 그동안 보호받던 뉴질랜드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에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겪었다. 개혁 이전 뉴질랜드의 농업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양털과 양고기를 생산하

던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개혁 이후 양털과 양고기의 해외수요가 줄어든 반면 쇠고기와 임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쇠고기와 임산물도 뉴질랜드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제조업분야에서도 개혁 이전 보호조치로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은 개방으로 타격을 받았고 개혁 이전에도 해외로부터 자본, 기술 등의 제휴가 활발하였던 기업은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양극화가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개방에 따라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뉴질랜드 정부는 경제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개혁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동안 뉴질랜드 경제의 추락을 경험하였던 농민과 제조업자들은 개방으로 심각한 타격을 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만이 생존의 길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였다.

보조금 삭감으로 변화한 것은 농민들의 생산방식이다. 보조금 폐지로 농민들은 시장의 추이를 살피면서 농작물 생산을 조절하게 되었고 조달금리를 고려하여 농기계 등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과잉투자 및 생산의 풍조는 점차 사라지게 되는 농업부문의 시장원리가 정착하게 하였다. 개혁이 시작될 무렵 기존 농가의 약 10%인 8,000여 가구가 전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1990년대 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약 1%만이 농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폐지로 농민 도산이라는 충격이 약했다. 반면, 과학적인 영농과 자율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민들의 생산물 구성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개혁 이전 높은 보조율을 보였던 양 사육이 감소한 반면, 소 사육은 증가하였다. 즉, 농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으로 농가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였고 시장수요에 의한 합리적인 농업경영 정착과 경쟁력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었는바, 특히 200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경쟁력 있는 뉴질랜드

産 농산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농업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농민의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던 반면 농지가격은 약 25%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았으나 농지가격이 하락한 것은 농지의 수익성이 낮아져 농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농가의 토지 보유를 증가하게 하였고 농업을 새로 시작하는 진입도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농업개혁이 미친 외적인 파급효과 즉,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던데 비해 오히려 농민들의 새로운 농업경영방식에 대한 모색을 가능하게 하였고 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의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민당을 지지하였던 농민단체는 개혁 추진 이후 노동당이 추진하는 농업개혁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농민들은 농업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나. 고용구조 변화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이후 농업 관련 취업자 비중은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업종사자의 절대수는 늘어났다. 즉, 농업개혁의 영향으로 농민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민들의 자세는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농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았던 제조업도 시장개방으로 고용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 축소에 따른 감소가 약 20%, 공장 폐쇄에 의한 감소가 약 10%이다. 제조업의 근로시간은 개혁 초기에 크게 변하지 않다가 1980년대 후반 빠르게 감소한 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0~81년 이후 제조업의 근로시간은 약 15~20% 감소하였다.

또한 고용계약법의 시행에 따라 고용계약의 형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집중적으로 결정되던 고용계약이 개인단위

혹은 기업단위에서 분권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고용계약과 임금교섭의 주류를 이루던 산업별 중앙집중식 단체교섭의 비율은 고용계약법 시행 이전에 전체 계약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 비율은 1993년 중반까지 약 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단일고용주를 상대로 교섭하는 기업단위 단체교섭의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35%로 증가하였다. 개인단위의 고용계약의 비중은 이 기간 10%에서 45%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단체행동에 의한 파업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손실일수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물론 이 같은 단체행동의 위축은 1990년대 초 경기침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고용계약법의 시행 때문이다. 실제 1990년대 이전까지 평균 수십만 일에 달하던 연간 노동손실일수는 1999년에 9만 9,032日에서 1994년에는 4만 9,744日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 생산성 향상

농업과 제조업은 물론 수출, 비교역재부문 등 전 산업에 걸쳐 개혁 이후 10년간의 연평균 총요소생산 증가율이 개혁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생산성 증가분을 지칭하는데 전체 생산성증가율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점하는 비중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대략 60~70%를 점한다. 주력 수출품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연 6.3%로 1960년 이후 어느 기간의 증가율보다 높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부문별, 경기별로 다르며 운송과 통신산업에서 또한 증가율이 높고 이 산업들은 대부분 성장률도 높게 나타났다.

또 전기·가스·도소매 등 비교역재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낮았지만

제조업도 생산성 증가율은 낮았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호주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증가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제조업 상품의 수출증가와 달리 내수는 1980년대 후반에 크게 감소했다. 산업의 구조변화는 고용 변화, 산출량 변화 그리고 생산성 변화로 연결된다. 부문별 산출량 변화를 나타내는 구조변화지수는 1978~85년보다 1985~92년이 훨씬 높고 또 1992년과 1995년의 경기상승기에 더 높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볼 때 최근 뉴질랜드의 경제호황은 단순히 운에 의한 호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듯하다. 세계상품시장 강세와, 축산물 관련 질병, 관광객 유입 등은 뉴질랜드 경제여건에 흔하지 않은 호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뉴질랜드의 경제호황은 경제개혁의 성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말할 수 있다. 우선 1999~2000년 수출증가가 농산물에 의해 이루어졌다. 앞서 농업개혁에서 언급하였듯이 보조금 폐지와 영국이라는 주요 수출시장 상실 이후 농업은 타격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장원리에 의한 농업경영이 정착되었다. 과거 유럽에서 수요가 높았던 양과 염소 외에 세계시장에서 유제품과 소고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상하여 소 사육을 증대시켰고 이후 시장여건에 따라 양과 소의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엄격한 검역과 ‘청정 뉴질랜드(Clean New Zealand)’ 캠페인은 축산물 관련 질병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 乳製品과 축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 상품 수출도 목재, 알루미늄 등 일부 상품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 세계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조절한 결과 상품시장 강세로 교역조건이 개선된 2000년 뉴질랜드는 수출증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또한 산업의 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였고 외국과의 합작, 투자유치 등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고용을 증대시켰다. 비록 뉴질랜드 시장이 협소하고 이렇다 할 만한 제조업이 없어 뉴질랜드는 외국인투자를 통

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국부유출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뉴질랜드 국민과 정부는 자국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있었고 협력강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이익이 뉴질랜드에 남는다고 믿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상반기 내수경기 호황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수출증대에 따라 농가 소득이 증대하였고 제조업이 회복되면서 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여 수출부진을 상쇄하는 내수경기 호황을 맞이하였고 기업들의 재투자는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뉴질랜드 고용률은 1980년대 이후 최고수준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단련하였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 최근 뉴질랜드 호황의 기반이라 요약할 수 있다.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 뉴질랜드 경제여건은 단기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01년 농민들의 소득 증가와 이민 증가로 내수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바와 같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고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이 증가세에 있고 관광객 방문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세에 있는 재력 있는 뉴질랜드인 이민자는 소비증대, 주택 등의 건설경기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내수주도의 성장세는 2001년 이후 감소한 수출주도의 성장을 상쇄할 수준을 보여주었다. 수출도 2002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03년에도 수출증대가 예상되어 7%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내수호황, 수출증가 등의 예상은 2003년 여름 이후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선 농업 수출은 청결하고 고품질로 입증된 뉴질랜드産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중국의 WTO 가입은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세계시장이 회복된다면 제조업 제품은 다소 증가를 보일 것이고 임산물은 가격 안정시까지 4~5년은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뉴질랜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민자 유입은 노동인구를 0.75%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임금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 또한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게 되고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품목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이 2001년 1.8%로 하락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실업률도 5%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낮은 환율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4) OECD 전망치

점으로 미루어볼 때, 2003년 말 단기 이자율이 5.75%를 기록하여도 코어 인플레이션은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거나 교역조건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뉴질랜드는 생산여력의 부족으로 세계 수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상황으로 1993년 뉴질랜드는 세계경제 수요증가, 환율약세 현상이 동반되어 이듬해 경기과열을 경험하였는바, 즉 10% 이상의 수출신장률, 7%대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뉴질랜드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2002년 초 경제성장은 국내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수출부진을 상쇄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수출감소가 지속된다면 국내수요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상품가격의 추이가 하향세에 있어 주요 상품이 1차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압력과 시장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 상품시장에서 수요 감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뉴질랜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주목된다. 실제 두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국내 및 대외 부문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행운이 지속된 시간—뉴질랜드에 우호적인 경제여건—종료 되면, 결국 뉴질랜드는 매우 강하거나 혹은 매우 약한 경제구조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2000~01년처럼 뉴질랜드 경제에 우호적 조건이 사라진다면 뉴질랜드는 안정적인 성장 혹은 침체라는 극단의 상황을 기록할 것이나 이는 경제기반이 건실한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즉 1984년 이후 경제개혁의 진정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여 거시경제의 효율성과 경제기반 강화를 모색하였고 그 성과로 1990년대의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기대하고 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경제적 쇠락

을 경험한 뉴질랜드는 1984년 뉴질랜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국민들의 개혁 동참으로 경제의 체질이 변화하게 되었다. 보호정책이 중심이었던 경제정책에서 개혁 이후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은 사라지게 되었다. 개혁 초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다소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뉴질랜드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산자와 정책입안자에게 보호정책과 보조금 폐지 이후 경험하게 된 환경은 무엇보다 시장원리에 충실하는 것이다. 시장에 순응한다는 것은 장벽이 제거됨을 의미하는데 뉴질랜드 정부도 이러한 시장주의 환경을 위해 법개정 혹은 규제완화 등의 능동적인 정책을 실행하였다.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데에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함은 당연하였다.

1990년대 동아시아에 닥친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개혁 정책은 뉴질랜드의 개혁사례를 주목하였다. 각국마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상이하고 경제환경이 다양하여 뉴질랜드의 개혁사례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둘째, 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서 저항은 어느 정도였으며 설득은 어떻게 하였는가이다.

뉴질랜드는 경제상황이 최악의 순간에서 서둘러 개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개혁은 배경에 ‘이미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이상 개혁만이 생존’이라는 논리를 펼치게 되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광범위한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나 미래에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다음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설득하였다. 첫째, 경제 각각의 분야에 대한 개혁비용은 각각의 개혁의 결과에 의해 상호이익으로 보상될 수 있으므로 개혁을 추진하여 체질을 강화한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은 기득권 세력과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대한 급속한 개혁은 곧 특정집단에 유리하지 않은

평등적 개혁을 의미하므로 정당성이 확보된다.

1984년의 경제위기와 개혁은 뉴질랜드 사회를 변화시켰다.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개혁 초기에 타격을 받은 부문, 특히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농민들은 개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 개혁에 순응하게 되자 정부측에 관세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지지세력이 되었다. 농민뿐만 아니라 제조업자들도 환율과 이자율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등 뉴질랜드의 개혁은 모든 부문에 걸쳐 국민들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개혁사례를 보여주었다. 실제 개혁이 시작됨과 동시에 많은 뉴질랜드 기업이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부 유출 염려에 대해 기업이 매각되어도 이익은 뉴질랜드에 남게 되며, 뉴질랜드에서 이익을 올린 기업은 이를 다시 뉴질랜드에 투자한다고 주장하여 외국과의 제휴 혹은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혁 이후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비록 최근의 경제여건이 행운으로 평가되더라도 뉴질랜드는 과거의 개혁성공과 이러한 행운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하였다. 현재에도 뉴질랜드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비하고 투자하고 있다. 향후 세계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불투명하나 뉴질랜드는 미래의 충격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 현재의 개혁은 기존의 개혁성공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교육, 보건, 복지 분야에 걸친 개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의미의 개혁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제도를 수정하는 개혁은 또 다른 위기를 맞는다고 믿고 있으며, 진정한 개혁은 미래지향적인 개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이 모든 국민에게서 지지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개혁이 국가생존이라는 대명제하에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개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도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원용걸. 2000. 『AFTA-CER간 연계가능성과 시사점』. 지역연구시리즈 0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병남. 1999. 『뉴질랜드 고용 개혁 및 교훈』. 자유기업센터
- 이계식 외 2인. 1998. 『뉴질랜드 경제·사회 혁명은 이렇게 성공했다 : 350만의 드라마』. 서울 : 중앙 M&B.
- 전준모. 1996. 『뉴질랜드 便覽』. 지역정보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은행. 1996. 『뉴질랜드 금융경제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연구 자료 96-10.

〈해외문헌〉

- Brash, Donald T. 1996. *New Zealand's Remarkable Reforms*. IEA.
- DRI-WEFA. 2002. Aug. *Asia Monthly Economic Outlook*. WEFA.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2. June 6. p. 46.
- Hunn, Donald K. 1997. *Public Sector Reform in New Zealand*. Seoul: KITA.
- IFF. 2002. New Zealand: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20/72. (March)
- IMD. 2002.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2.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New Zealand. (May)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2. *New Zealand Quarterly Trade and Economic Indicators*. New Zealand. (June)
- New Zealand Debt Management Office. 2002. *New Zealand Economic and Financial Overview I*. The Treasury.
- NZIER, 2002. "A look at New Zealand's competitive advantage." Working Paper 2002/04. (August)
- OECD. 2002. *OECD Economic Surveys: New Zealand*.
- Reserve Bank. 2001. Oct. *Independent Review of the Operation Monetary Policy*. New Zealand.

Wolford, Ian. 1996. *Financial reform in New Zealand*. Reserve Bank of New Zealand.

www.med.govt.nz.

www.oic.govt.nz.

www.treasury.govt.nz.

www.rbnz.govt.nz.

www.stat.govt.nz

www.tradenz.govt.nz.

Executive Summary

The Importance of the Recent Resilience of the New Zealand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Kyoung Doug Kwon

The New Zealand economy has been remarkably resilient over the past few years. Although, the country did record minus growth once in 1998 due to the 1997 East Asian crisis, it immediately recovered in 1999 and achieved a high growth rate in 2000. Considering its economic performance over the past five years, it seems safe to conclude that New Zealand will be able to achieve sustainable long-term economic growth.

Various factors have contributed to New Zealand's resilient growth in recent years. First, the country has enjoyed the rare combination of having a weak exchange rate at the same time as high export prices; thanks to this situation, prices in local currency terms were extraordinarily favourable. It will be difficult to encounter another case of such auspicious circumstances in the long term. Moreover, New Zealand enjoyed a temporary pickup in wages. The real wage gains supported the expansion of disposable income and consumer spending.

While such factors have contributed, it is through comprehensive structural reforms, which have been ongoing for the past 20 years, that New Zealand has strengthened its economic fundamentals to deal with economic shocks and learned to maximize its competitiveness. New Zealand's productivity and

per-capita performance improved over the 1990s, especially in the latter part of the decade. However, its strong performance in productivity stemmed from economic reforms initiated in the 1980s, reflecting the fact that reforms take time to implement and show their full impact, especially since reforms in the key agricultural export sectors were only fully completed recently. New Zealand's industrial restructuring eradicated inefficiencies, attracting FDI and collaboration with foreign companies that helped overcome its weaknesses and increase employment.

New Zealand's recent resilient economic growth does not seem to be just a temporary phenomenon brought on by fortunate timing. Although auspicious external circumstances, such as the high prices in the world commodity market, livestock diseases in competit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problems that made New Zealand seem like a safe alternative for tourists, were factors, New Zealand's strong reform efforts have been the main underlying force behind the country's achievement of long-term sustainable economic growth.

權耿德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학과 졸업(1992)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1997)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kdkwon@kiep.go.kr)

著書 및 論文

『메콩강유역 개발현황과 우리나라의 참여방안』(공저, 1997)

『IMF 구제금융사례연구』(공저, 1997)

「외환위기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태국」(1998) 외

지역리포트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2002년 12월 20일 인쇄

200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한라인쇄 (02)503-3011 대표: 박노부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 · 複製를 금함】

ISBN 89-322-6058-3 94320

89-322-6017-6(세트)

정가 5,000원

The Importance of the Recent Resilience of the New Zealand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Kyoung-Doug Kwon

최근 뉴질랜드는 수출 증가와 내수경기 호조로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1980년대 농업보조금, 산업보호주의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였고 그 결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뉴질랜드에서는 점차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84년 뉴질랜드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개방 등 경제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체질 강화를 모색하였다. 최근 뉴질랜드의 경제호황을 단순히 운에 의한 호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듯하며, 지난 20년간의 개혁을 통해 다져온 시장경제, 경쟁력 확보, 투명성 등의 경제개혁 성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질랜드 개혁은 미래에 대비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178 FAX : 3460-1144

